

## 도청별관 일부 존치 합의

### 문광부-10인 대책위 문화전당 설계 변경 불가피 완공 지연

정부가 옛 도청 별관 철거를 전제로 한 문화전당 설계안을 철회하고 별관을 일부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관련기사 3·12면〉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는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5월단체 회원들의 농성으로 시작된 도청 별관 문제가 1년3개월 만에 해결됐으나 설계 변경을 위한 시간이 필요, 애초 2012년 완공 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이날 간담회 직후 참석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선대표 10인 대책위의 의견을 존중, 애초 설계안을 철회하고 어떤 형태로든 (도청)별관을 보존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이에 대해 광주 시장은 시민의 정서를 감안, 보존 방법으로 가급적 게이트 안으로 해 주되 구체적 방법은 정부에 일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주시장의 건의를 존중하되 보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에서는 기존 설계안을 고

수했으나 10인 대책위의 끈질긴 설득 끝에 도청 별관 보존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존 방법과 관련, 10인 대책위는 당초 건의안인 '5월의 문' 방안을 요구했으며 정부에서는 청사진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명칭을 '게이트'안으로 하라고 제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별관을 보존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태 시장은 "게이트 형식으로

는 5월의 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정부 측에 건의했으며 이에 장관이 결단을 내리겠다"며 "다만 기술적 문제나 디자인 등은 정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애초 예상보다 길게 두 시간 이상이 걸렸으며 도청 일부 10인 대책위 측과 정부 관계자 간에 고성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 장관과 박 시장, 조용택·김영섭·강기정·김재균·김동철·이용섭 의원, 김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설계자 유규승씨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권 그린벨트 14km<sup>2</sup> 더 풀린다

### 나주·장성 등 포함...보급자리 주택 활용

### 2020년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공청회서 제시

정부의 전국 7대 광역권 개발제한 구역 추가 해제 방침에 따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함평군)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73km<sup>2</sup>가 추가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수립된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가 예정된 구역까지 포함하면, 향후 해제가능지역은 23.73km<sup>2</sup>로 늘어나 광주광역시 내 개발가능지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 각 시·군에서는 추후 급증하게 될 개발가능지역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한 문화·예술·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보급자리

주택 부지 확보, 광주시 배후 산업거점 육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 용역을 의뢰받은 광주발전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의거,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 면적의 10~30% 내에서 추가 해제할 수 있으며, 광주시와 나주시 등 전남도는 최대폭인 30%를 추가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각각 7.52km<sup>2</sup>, 6.21km<sup>2</sup>의 면적이 개발가능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남 각 시·

군의 추가해제면적은 담양 2.32km<sup>2</sup>, 장성 1.95km<sup>2</sup>, 나주 1.51km<sup>2</sup>, 화순 0.43km<sup>2</sup> 등이다.

이 같은 안은 향후 의회결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께 최종 결정된다.

특히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라 광역권 내 공간구조가 기존의 권역 중심(광주 구도심)-권역 1차 부심(상무신시가지, 나주시)-권역 2차 부심(담양읍, 장성읍, 화순읍)에서, 권역 중심(광주 구도심, 상무신도심)-권역 1차 부심(나주시, 남평읍)형으로, 첨단-비야, 송단-하남)-권역 2차 부심(담양읍, 장성읍, 화순읍, 백운) 등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광주 의 서쪽지역이 광주광역권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담양군이나 화순군 등 동쪽지역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다"며 "7대 광역권 모두 추가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한 개발가능지역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해제를 한 것이지, 이들 지역이 바로 개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을 마치고 지난 20년간 활동했던 법원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운이 주신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오 세 옥 올림

사무소 광주광역시 중구 37-10 동산동 10층 법원 10층 1005호

전화번호 : 062-233-3326, 3327

팩 스 : 062-233-3328



## 1700 뚫었다

### 코스피 1,718 연중 최고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를 발판으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700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3.38포인트(1.38%) 오른 1,718.88을 기록했다. 이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운 것은 물론, 1,717.66으로 마감한 지난해 6월20일 이후 약 15개월 만에 1,7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또 1,731.00을 기록한 지난해 6월20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수는 이날 6.46포인트(0.38%) 오른 1,701.96으로 출발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 1,720.73까지 올라 장중 연고점도 갈아치웠다.

코스닥지수도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3.87포인트(0.73%) 오른 536.97로 마감했다. 541.25로 마감한 6월3일 이후 약 5달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가 상승 등을 배경으로 이틀째 하락하며 연저점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6원 내린 1,20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저소득층 추석 선물

22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추석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2천800세대에게 보낼 추석 구호품을 정리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j@

## 공무원노조 통합, 민노총 가입

### 노-정 갈등 증폭 예고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노총에 가입하게 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22일 서울 영등포로 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3개 노조의 통합과 민노총 가입 안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3개 노조가 세부 절차를 거쳐 민노총 산하 전국 통합 공무원노조로 전환하면, 그동안 노조별로 사용자인 정부와 진행했던 단체 교섭권한이 민노총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미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양자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노조는 조합원이 전공노 4만8천여명, 민공노 5만9천여명, 법원노조 8천500여명 등 총 11만5천여명에 달해, 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천명), 공공노조(14만2천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연맹이 된다. /연합뉴스

선택의 즐거움, 가득한 기쁨 -

# 금강상품권

하나의 상품권으로 30여가지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세요!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 금강상품권 전국 어디서나 1588-8877

NAVER 금강상품권

REGAL, BALENCIAGA, ESPERADOR, Renoir, renoma, Clarks, LANDROVER, Timberland, VALLEVERDE, Bulko, BiosOF, 금강제외